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0호 현대불교
2008년 1월 1일(음력 11월 23일) 화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B13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동참해 주신 그 선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 안양시의 귀빈 여러분께서 오신 것도 회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 돌기라고 했지만 가장 돕기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억갑을 거지면서 미생들에서부터 수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진화되고 화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고, 인간이 돼서도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헤어질 수 없는 광년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내 부모고 어떤 게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 어떤 것이 내 자식이 아니고 어떤 것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모두를 내 아 품같이 생각하고 또 내 한도량으로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또는 자(子)와 부(父)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불교(佛敎)가 어떠한 것인가?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교(敎)란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서 배우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또 물리가 터져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여건이 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진리인 것이 어디 한 군데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우주와 더불어 삼라만상 자체, 만물만생이 전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불 밥값으로 나오면 죽듯이, 인간도 공기주머니 속에 한 발짝도 예누리 않고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그 공기주머니가 버스라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네 걸상 네 걸상 하고 싸우고, 네 걸상이 옳으니 네 걸상이 옳으니 하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머리 깎은 사람이나 목탁 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만물이 다, 같이 시공을



그림 · 최주현

조월해서 돌아가면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새 한 마리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나와서 불 때에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이 광대한 진리, 불교라는 그 언어 없는 언어를 성실히 실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났다면 우리가 바로 '불(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이 상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인데 '나'는 버리고, '나'는 생각지도 않고 항상 이름과 형상에만 매달려서 모두 밖으로 찾으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보기는 좋고 멋진 있을지언정 참자기는 발견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몸속에 헤어질 수 없는 생명과 의식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억갑 전으로부터 우리가 진화해서 형성했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몸이라고요. 그 속에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얼마나 헤어질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런데 몸속에 있는 그 모습들 중의 하나가 만약에 큰 물체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축소해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

게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계성 세균성, 이 다섯 가지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로서 나의 몸에 모두 주둔이 돼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은 마세요. 그거는 의식 속에서, 그 다섯 가지의 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심봉이라는 선장은 바로 불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주인 공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많습디다마는 그 선장은 바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중심에 끼워져 있는 심봉과 같은 겁니다. 수레 중심에 끼워져 있는 그 중심축입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 심봉은 힘을 배출해 줄 뿐이지 부동한 것인데 바퀴가 모두 거기에 의지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수레라고 본다면 우리 부처님 자체, 근본이 바로 그 심봉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지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정되게 하는 게 하

나라도 있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되게 했다,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어떤 거 할 때에, 어떤 거 할 때에 내가 왔다고 하며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본다면 때에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애, 아무개야!' 부르면 바로 아들이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나무에서 돌아가듯이 인생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 공마저도 공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라는 이 자체가 광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말로는 어떻게 헤어질 수가 없고 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없는 진화를 해 왔습디다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모습, 자기 차원이 주어지곤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고,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멍이에 빠질 수가 있고 물에 빠질 수가 있고 어렵하다 보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배로 비유했고, 몸뚱이 속의 생명들을 증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들이 의식적으로 모두 한 심봉의

선장으로다가 합쳐 주지 않는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 만물만생 중에 무정물인데 식물이면 간에 뿌리 없이 사는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영원한 자기 선장의 뿌리가 있는 데도 그 선장을 믿지 않고 타지에서 자기 자신을 구한다면 백 년 만 년이 가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올바른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그 자체도 천차만별로 하는 사이 없이 나갑니다. 고정됨이 없어서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했다' 하는 생각도, '내가 안 했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묵묵히 놓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몸뚱이, 생명의 집합소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속에 그 생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주인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인을 바로 부처라고도 하고 자기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의에, 나로부터 세상은 있는 겁니다. 사대 성인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정도 다 알 수 있느니라. 너를 모르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우주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묘하고 광대한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무 것도 모르더라도 좋다. 일거수일투족 들어오고 나가는 거, 내고 들어오는 거, 그것을 하는 놈이 누구냐? 네가 하지 않느냐, 바로 네가 한다면 네가 어떤 거 할 때 너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주인공이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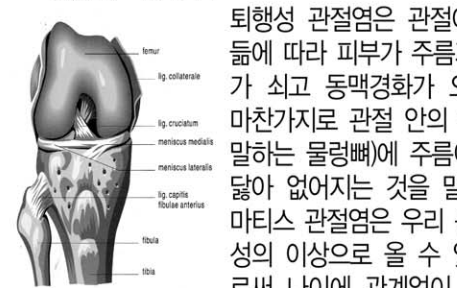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력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안으로 보는 거, 마음의 귀로 듣는 거,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오는 거, 남의 마음을 아는 사이 없이 아는 거,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 그래서 속명통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 이 다섯 가지를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시кет말로 다섯 가

14면으로 계속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염결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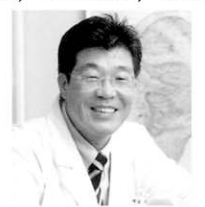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어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증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輕症), 중중(中症), 중중(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움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중(中症), 중중(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과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근·하·신·년

불기 2552(2008)년 새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클리어마인드 · 현대북스 대표 오세룡(석담)
임직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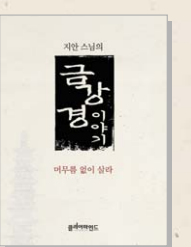
2007년에 독자들이 사랑을 주신 책 -



「간화정로」
월암 스님



「염불선」
덕산 스님



「금강경이야기」
지안 스님



「좋은만남 멋진이별」
자광 스님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역음

클리어마인드

(주)지오비스 | 도서출판 클리어마인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투신워브빌딩은 736호
T. 02)2195-5151 F. 02)2198-5153
gobs108@hanmail.net

현대북스

현대북스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1가 7번지
T. 051)244-1251 F. 051)244-1241
hdbooks21@hanmail.net